

《紀年兒覽》에 나타난 李萬運의 歷史認識

高 錫 珪

머 리 말

一. 李萬運의 생애

二. 《紀年兒覽》의 編纂과 作史原則

1. 編 纂

2. 作史原則

三. 《紀年兒覽》의 古代史 認識

四. 《紀年兒覽》의 史學史的 位置

맺 음 말

머 리 말

역사인식은 시대적 상황의 산물로서 史書를 통해 구체화된다. 따라서 그러한 역사인식의 반영물인 史書를 검토함으로써 그 시대상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위에서 史學史 연구는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역사학의 고유한 분야인 사학사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아직 연구 성과의 면에서는 뒤떨어져 있다. 일제 하 식민주의 역사학에서도 거의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며, 해방 후에도 1957년에 이르러 비로소 韓祐勸교수의 〈星湖 李瀾研究의 一端 — 그의 史論과 朋黨論 —〉(《社會科學》 1)이 조선후기 사학사 관계의 최초 연구로 나왔고, 60년대 후반, 70년대에 이르러서야 몇몇 연구자들에 의하여 주목될 수 있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서면 비약적인 성과의 증대를 보인다. 개별 역사가에 대한 연구의 폭도 넓혀 졌고 체계화의 노력도 나타났다.⁽¹⁾ 이는 역사발전과정에서 역사인식의 변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요청하고 있던 현실의 상황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기왕의 연구업적을 통해 정리된 조선시대 역사인식의 시기적 특성은 대략 다음과 같은 몇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²⁾

(1) 최근까지의 朝鮮後期 史學史 관계 연구현황에 대하여는 다음의 논문들이 참고된다.

趙 珪, 1985 〈朝鮮後期の 歷史認識〉《韓國史學史의 研究》乙酉文化社.

조성을, 1987 〈조선후기 사학사 연구현황〉《韓國中世社會解體期の 諸問題》上한울.

(2) 이상의 정리에는 다음의 논저들이 참고되었다.

李萬烈, 1974 〈17·18世紀의 史書와 古代史認識〉《韓國史研究》 10.

韓永愚, 1976 〈實學者들의 史觀〉《讀書生活》 1976년 6월호, 讀書生活社.

조선왕조 건국의 타당성을 주장하던 훈신계열의 유교사관에 입각한 官纂史書 중심의 15세기를 거쳐, 16세기에 들어서면 사림의 입장이 반영되어 건국 초의 인식이 재정리되는 경향 속에서 私纂史書의 발간이 이어지면서 道學的 역사서술이 자리잡았다. 16세기 사림들은 朱子の 《資治通鑑綱目》의 筆削 정신, 정통의식에 입각한 道學的 역사평가를 행하였다. 다만 그 가운데 事大와 節義 문제의 인식에 있어서 영남사림과 기호사림 간에는 시기적, 지방적, 문화적 기반의 특성에 따른 역사평가의 질적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士林政權이 확립되면서 봉당정치와 전형기를 거치는 가운데 사림 자체는 점차 보수화되어 갔고 그와 더불어 도학적 역사인식도 심화되었다. 한편 이에 반발하는 反道學的 역사인식도 대두하고 있었다.

17·18세기 사서의 역사서술의 특징은 형식상 범례의 보편화와 강목체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이는 곧 조선 건국의 자기합리화의 절대성이 완화된 후, 양난을 거치면서 체제 유지를 위한 이념적 도구로서 朱子綱目史學이 보다 강조되었음을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한국사의 체계화에 반영된 정통론적 입장의 강화로 나타났다. 반면 양명학파, 북학파 그리고 道家들에 의한 새로운 사풍의 형성도 나타났다. 18세기에는 정국의 변화와 당파적 입장에 따른 보다 다양한 흐름들이 전개되었다. 그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실학자들의 역사인식이었다. 星湖 李瀾과 順菴 安鼎福 등 기호남인계열의 사학, 양명학적 역사인식을 보인 修山 李種徽의 사론, 그리고 柳得恭 등 북학파계열의 역사인식 등이 주목되었다. 18세기말 19세기초는 전통적 역사서술의 고전들이 나타나던 시기로 안정복의 《東史綱目》과 함께 조선후기 3대사서로 불리는 李肯翊의 《燃藜室記述》, 韓致齋의 《海東釋史》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중국중심세계관 타파의 선구적 역할을 한 湛軒 洪大容의 사상, 화이의 구별은 문명의 수준에 있지 문명의 所出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문화적 화이관으로의 일대 전환을 이룬 茶山 丁若鏞의 역사인식도 이 무렵에 나타났다. 그리고 《葵史》, 《掾曹龜鑑》, 《壺山外記》 등 지배자 중심의 역사학으로부터의 탈피경향도 보였다. 근대 이행기로의 전환기에 상응하는 역사서술상의 변화였다.

韓永愚, 1981 《朝鮮前期 史學史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李基白, 1981 <19세기 韓國史學의 새 樣相> 《韓祐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趙 珩, 1985 같은 논문.

이와 같은 사학사의 흐름 가운데 18세기말 19세기초의 史書로서 종래 주목되었던 것은 《海東繹史》와 《燃藜室記述》이었다. 이 두 사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같은 시기의 사서인 《紀年兒覽》은 상대적으로 외면되어 왔다. 《紀年兒覽》은 편찬 당시 사풍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효율적 역사서술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年表 형식을 채택한 점이라든가 아동용 사서로 제작된 점 등 사학사적 의미도 결코 적지 않다. 더구나 저자인 李萬運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상의 계통적 이해의 자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增補文獻備考》의 正祖대의 增訂 작업에 개인으로서는 거의 절대적 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해 볼 때, 李萬運 사학의 집중적 표현인 《紀年兒覽》의 성격에 대한 구명은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만운은 英·正祖대에 걸쳐 살았던 인물로 그 자신은 물론 그의 아들인 儒準에게 《文獻備考》의 增訂 작업이 계승되었다. 이는 家業的 성격을 지니며 전개되었던 편찬작업으로서 극히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그렇게 많이 이용되면서도 아직 사료비판마저 되어있지 못한 《增補文獻備考》 자체의 분석은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시급한 해결이 요청되나 필자의 능력에는 부치는 너무나 방대한 작업이다.⁽³⁾ 여기서는 다만 사학사적 관점에서 이만운의 개인 저서인 《紀年兒覽》의 분석을 통해 그 사학사적 특징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이만운의 개인적 비중에 비하면 그의 행적 및 학문을 알 수 있는 현존하

(3) 《增補文獻備考》중 고대사의 체계적 인식은 <輿地考> 27권과 <帝系考> 14권에 보인다. <輿地考>는 작성초기에 《疆界誌》의 저자인 申景潛이 주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그 내용은 《疆界誌》와 상응한다. 그런데 그 중 권 1~6에 해당하는 「歷代國界」一·二와 「郡縣沿革」一·二·三·四是 《紀年兒覽》 권 6 「東國歷代地界」와 권 8 「本國(朝鮮—필자)地界」 등과도 유사하다. 이로 미루어 보면 증보 과정에서 李萬運의 영향이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한편 <帝系考>는 이만운이 《文獻備考》를 增訂하면서 증설한 <王系考>와 <氏族考>를 합한 것이며, 다만 거기에 正祖 이후의 사실들만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帝系考>의 구성은 체계적 왕계가 6권이고, 부록인 氏族考가 8권이다. <帝系考>가 이만운에 의하여 증설된 <王系考>와 <氏族考>를 합한 것임을 생각한다면 <帝系考> 중 권 1~6은 바로 이만운의 저작인 <王系考> 그것이다. <帝系考>의 내용은 권 1: 璿譜紀年 권 2: 歷代紀年 권 3: 太上王·太后·后妃·儲嗣·世子嬪 권 4: 王子 권 5: 王女 권 6: 宗室·宗室故事·國號 등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紀年兒覽》중 東國紀년에 해당하는 권 5·권 7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그 차이는 《紀年兒覽》이 廟號 아래 派系·后妃·陵墓·故實·攷異 등의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반면, <帝系考>에서는 항목별로 별개의 권을 나누어 시기순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구성상의 차이가 있는 정도에 그친다. <輿地考>·<帝系考>와 《紀年兒覽》의 정밀한 비교분석은 이만운의 학문 및 그 반영물인 《文獻備考》의 성격을 밝히는데 유용한 수단일 것이다. 다만 이는 본고의 주제를 넘는 분석이므로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는 사료는 극히 적다. 따라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현 수준에서 파악 가능한 그의 생애와 학문의 성격을 《紀年兒覽》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문화전통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한 조선후기 사서들은 고대사의 인식에서 그 체계화의 두드러진 차이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紀年兒覽》의 고대사 인식에 주목하여 그 체계화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18세기말 조선왕조의 구체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회체제로의 변혁이 준비되던 시기의 역사인식의 한 유형으로서 사학사에서 접하는 《紀年兒覽》의 위치에 대한 검토를 덧붙이는 정도에 그쳤다.

一. 李萬運의 생애

李萬運(1723~1797, 字 仲心, 咸平人)은 영·정조대를 걸쳐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咸平 李氏 咸城君派에 속하며 1723년(景宗 3)에 進士 李慶甲(1701~1797)과 咸陽 呂氏사이에서 태어났다. 과거에 급제하지는 않았으나 총명하고 박학다식하기로 당시에 이름이 높았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다만 말년에 《文獻備考》의 增訂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관계 기록들을 통해서 그의 생애의 편린을 엿볼 수 있을 따름이다.⁽⁴⁾

그는 1782년(正祖 6) 蔭官으로 敦寧府 參奉에 있을 때 정조로부터 《文獻備考》修改의 명을 받았다. 《文獻備考》는 중국 당나라 杜右의 《通典》을 비롯하여 원나라 馬端臨의 《文獻通考》등 十通에 준하는 새로운 편찬으로 1769년(英祖 45)에 처음으로 착수되어 아홉달 만에 《東國文獻備考》 101卷 40冊 13考로 일단 완성되었다. 그러나 일을 너무 서둘러 편수국을 개설한 지 반년도 되지 못하여 완성되었고, 또한 여러 사람이 분담하여 편집을 맡았기 때

(4) 관계기록들은 다음과 같다.

《正祖實錄》 권 16, 正祖 7년 9월 丁酉조.

같은 책, 권 24, 正祖 11년 10월 己亥조.

같은 책, 권 31, 正祖 14년 11월 庚寅조.

《純祖實錄》 권 8, 純祖 6년 2월 乙巳조.

같은 책, 권 11, 純祖 8년 5월 乙丑조.

등 《朝鮮王朝實錄》의 기사와 《增補文獻備考》 卷首의 「正祖朝御題增訂文獻備考 標記」와 「附修改本末」(李儒準 識) 등이다.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일일이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리고 李萬運과 그의 아들 儒準의 生沒年은 《咸平李氏 族譜》(국립 한 58-가 33-96) 23책(1927, 李琮憲 저작 겸 발행, 咸平李氏大同 譜所)에서 확인하였다.

문에 체제도 서로 맞지 않고, 있는 자료도 다 초출하지 못하였으며, 또 오류도 많아 불완전한 것이었다. 이에 정조는 이만운에게 그 증정의 일을 맡기어 완수하게 하였다. 영조대의 편찬 때와는 달리 이만운 한 사람에게 거의 전적으로 맡겨져, 상고할 典乘은 內閣에서 수송하고, 役事에 드는 물건의 비용과 書寫人은 戶曹 및 宣惠廳에서 획급 받아 보수하도록 하였다. 이만운은 前代의 《東國文獻備考》의 잘못을 정정하고 빠진 것을 보충하며, 영조 이후의 사실을 추가하여 9년 후인 1790년(정조 14) 여름에 《增訂文獻備考》로서 초고를 완성하였다. 총 246권 66책 20고에 달하였다.⁽⁵⁾

이처럼 이만운이 수개·증정작업을 전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박학다식이 金鍾秀·蔡濟恭 등 당시의 대신들도 “이만운의 박학다식은 당세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조도 이만운에게 수개의 명을 내리면서

너의 총명하고 박식함은 이미 작할 바가 없으니 이번에는 국을 개설하여 인원을 갖추지는 않겠다⁽⁶⁾

고 하여 그 박식함을 들어 이만운에게 전담할 뜻을 보였다. 당시 類書學의 발달로 인하여 ‘博文’에 대한 일반적 관심이 풍미하던 중에도 이만운은 그 대표적 학자이었던 것이다. 방대한 《文獻備考》의 增訂 작업이 이만운 개인에게 맡겨 졌다는 것은 그의 개인적 역량의 탁월함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그는 《文獻備考》의 수개를 맡고 있는 동안인 1783년(동 7) 경에 尙瑞院 直長을 거쳤고, 1785년(동 9)부터 1787년(동 11)까지는 강원도 金化縣監을 지냈다.⁽⁷⁾ 그후 다시 조용되어 司導寺 僉正으로 승진하였고, 閣臣과 같은 대

(5) 李萬運 본의 《增訂文獻備考》는 영조대 편찬된 《東國文獻備考》의 象緯·輿地·禮·樂·兵·刑·田賦·戶口·財用·市糶·選舉·學校·職官 등의 13考에 物異·宮室·王系·氏族·朝聘·諡號·藝文 등 7考가 증설되어 총 20考로 분찬되었다. 그후 高宗대의 《增補文獻備考》에서는 物異를 象緯에 붙이고, 宮室을 輿地에 붙이고, 王系를 帝系로 고쳐서 氏族을 여기에 붙이고, 朝聘을 交聘으로 고치고, 諡號를 職官에 붙여서 모두 16考로 편찬되었다(《增補文獻備考》卷首의 凡例 제 1조 참조).

(6) 《增補文獻備考》卷首 附修改本末

「爾之聰明博識 既無其匹 今番則不欲開局備員」

(7) 1871년(高宗 8)에 成冊된 《關東邑誌》중 《金化縣邑誌》의 邑先生條 (亞細亞文化社 刊, 《韓國地理志叢書》중 《邑誌》19(江原道 ②), p.283) 참조. 《正祖實錄》권24, 正祖 11년 10월 己亥조에는 「前縣監 李萬運」이라 되어 있고, 이덕무의 《靑莊館全書》권 55, 菴葉記 2 「箕子朝鮮世系」 중에는 「後李金化萬運 編紀年兒覽 余示箕子世系 遂附錄 以爲傳疑之例」라 하는 기록이 있어 《紀年兒覽》의 편찬자인 이만운이 金化縣監을 역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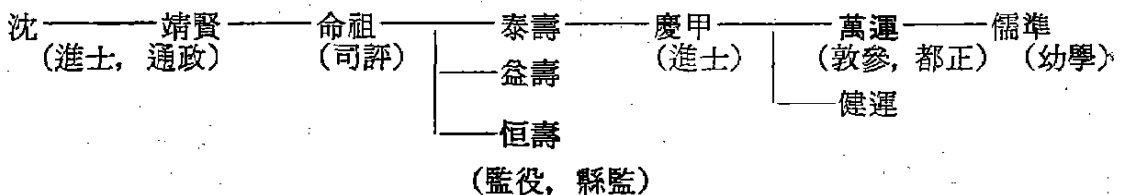
우를 받았다.

1790년(동 14)에 《文獻備考》의 증정을 완료하자 정조는 江華經歷을 窠闕로 만들어 제수하였다. 이때 이만운은 ‘百里之任’ 즉 수령을 맡을 수 있는 년한인 65세를 넘었기 때문에 左議政 蔡濟恭은 강화경력을 內移하고 이만운을 差遣함은 《大典會通》의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江都에 疎虞의 염려가 있어 불가함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단호하게 “일개의 경력을 遞易하는데 무슨 방해됨이 있겠는가”라고 하여 주저함이 없었다. 정조의 이만운 개인에 대한 신뢰 또한 매우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음관으로서 《文獻備考》 수개라는 막대한 영광을 부여받은 이만운의 보은에 대한 정조의 급부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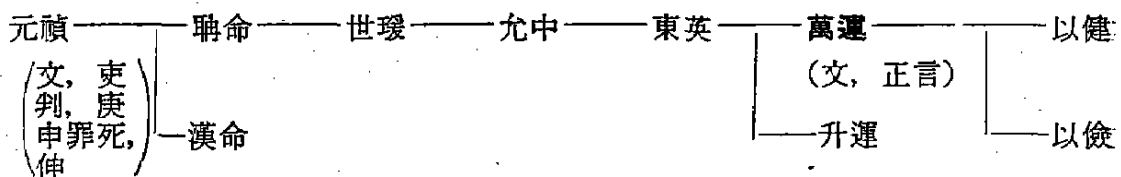
그후 1796년(동 20)에는 堂上官으로 승진하여 五衛將을 제수받고, 임직하는 날에는 假承旨로 임명되었다. 이어서 奎章閣 待教 徐有樂로 하여금 《日省錄》에 있는 정조 즉위년(1776년) 이후의 사실을 채록하여 이만운에게 주어 보편하게 하였는데, 이듬해 봄에 이만운이 갑자기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중단되고 말았다. (8)

(8) 《紀年兒覽》의 저자로서 이만운은 증래 字 元春, 號 默軒, 廣州人으로서 元禎의 5대손이라고 알려져 왔다. 이는 中樞院 편찬의 《朝鮮人名辭書》에서 광주인 이만운과 함평인 이만운을 혼돈하여 “別人인지 同人인지 아직 상세하지 않다”라고 유보하여 놓은 부분을 아무런 비판없이 新丘文化社 刊 《韓國人名大事典》에서 동일인으로 단정지워 버림으로써 비롯된 오류였다. 신석호 교수의 《증보 문헌비고》 해제(1979,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그 잘못을 일차 지적하였다. 默軒 李萬運(1736~?)은 1796년(정조 20) 2월에 漆谷으로부터 宣召되어 安宜縣監을 제수받았다. 官은 持平에 이르렀다. 박학한 通儒로서 天文, 曆算, 地理, 名物에 밝았다. 當路에 被忌되어 현달하지 못하고 林下에서 죽었다. 그의 문집인 《默軒先生文集》 12권 6책(국립 한 46-가 1575)이 있어 비교적 자세한 행적과 사상을 알 수 있다. 《萬姓大同譜》에 의거하여 兩人의 家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咸平 李氏



◎ 廣州 李氏



한편 그의 아들 李儒準(1760~1815, 字 聖則)은 1807년(純祖 7) 여름에 閣臣 沈象奎의 上奏에 따라 《增訂文獻備考》의 교정의 명을 받았다. 그리고 〈學校考〉를 裒輯 纂次하던 중인 이듬해 5월에는 역시 심상규의 건의에 따라 筆札과 紙地를 지급받아 교정을 계속하여 1809년(동 9) 겨울에 工役을 마쳤다. 이유준은 당시 四學에 籍을 두었던 학생으로 명망이 높았으며 이처럼 아버지에게 이어 《文獻備考》의 교정을 책임지은 것을 보면 그의 학문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유준 역시 자세한 행적을 알 수 없다.

이만운의 저술로는 《增訂文獻備考》 외에 본고의 분석대상인 《紀年兒覽》, 그리고 《俎豆錄》 2책, 《風泉吟》, 《莊陵誌》 등이 있다. 이 중 《俎頭錄》은 文廟와 八道書院·祠宇의 配享人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增補文獻備考》 권 210 〈學校考〉 9의 (補)祠院總論은 이 《俎豆錄》과 상당부분이 유사하다. 〈學校考〉는 본래 이만운이 증설한 것으로서, 閣中에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이유준의 수보를 거쳐, 그후 간행된 《增補文獻備考》에 수록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二. 《紀年兒覽》의 編纂과 作史原則

1. 編纂

8권 5책의 《紀年兒覽》(奎 No. 7472)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 1~4의 3책은 중국의 歷代紀年이고, 권 5~8의 2책은 우리나라(東國)의 歷代紀年이다. 권별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 1: 十紀~秦紀	권 2: 漢紀~隨紀
권 3: 唐紀~清紀	권 4: 附 歷代國都地界(이상 중국)
권 5: 檀君朝鮮~高麗	권 6: 附 東國歷代地界
권 7: 璿源世譜(正祖 即位까지)	권 8: 本國地界(이상 동국)

권두에는 「紀年兒覽總序」라 하여 1778년(正祖 2년) 가을에 쓰인 이만운의 自叙와 1777년(동 1) 초겨울에 쓰인 이덕무의 撰이 있어 《紀年兒覽》의 성격 및 편찬과정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권 1과 권 5의 머리에 「紀年兒覽凡例」 18조와 「紀年兒覽東國凡例」 11조를 각각 실고 있다. 따라서 본서의 체제 및 내용의 대강은 이 두 범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紀年兒覽》은 異本이 있다. 이덕무의 《靑莊館全書》 중 권 25·26에 실려있

는 것이 그것이다. <奎 No. 7471>의 《紀年兒覽》에는 앞에서 보듯 이만운의 自叙와 이덕무의 譔이 있고 《靑莊館全書》본에는 이덕무의 序만이 있다. 이 중 이덕무의 譔과 序는 거의 일치한다. 다만 수록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靑莊館全書》본에는 渤海, 日本의 世系·州郡과 駕洛·琉球의 世次에 대하여도 각각 수록하였다⁽⁹⁾는 부분이 있으나 <奎 No. 7471> 본에는 없다. 이 점은 곧 두 책의 수록내용 상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 自叙와 譔을 통해 양자의 관계와 그 편간 경위를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자.

李德懋(1741~1793, 字懋官, 號雅亭, 洞菴·靑莊館 또는 東方一士 라고 自號함)는 주지하듯이 청조 고증학의 영향 하에서 實事求是, 博學, 계몽적 학풍을 형성하였던 인물 중의 하나로서 특히 顧炎武·朱彝尊 등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典據에 대한 강한 관심 하에서 쓰여진 《蝨葉記》의 서술형식은 고염무의 《日知錄》을 방불케 한다. 또 明末遺民傳이라 할 수 있는 《磊磊落落書》는 여러 서적의 기사를 그대로 발췌하여 일일이 인용서목을 주기하였다. 이 점은 서유구의 《林園十六志》나 이덕무의 손자인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등에서도 뚜렷이 보인다.⁽¹⁰⁾

이처럼 청조학계의 동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博文·考據에 심취하여 있던 이덕무는 고염무·주이존처럼 朝章·國典에 밝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던 중 당시 工曹參判이던 金用謙의 소개로 이만운을 찾게 되었다. 그 첫 대면에서 이덕무는 이만운의 박학에 놀라면서, 고려 이전의 文獻의 無徵에 대하여

당나라 李勣이 고구려를 평정하고는 동방의 모든 서적을 평양에 모아 놓고 그 문물이 중국에 못지 않은 것을 시기하여 한꺼번에 불태워 버렸으며, 신라 말에 甄萱이 完山에 거하여 삼국의 遺書를 실어다 놓았는데, 그가 패망하게 되자 모두 소진되어 버렸으니, 이것들은 삼천년래 二大厄이라⁽¹¹⁾

(9) 《靑莊館全書》 권25, 紀年兒覽序

「至若渤海日本世系州郡 駕洛流球世次 亦各附錄」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권26의 끝에 紀年兒覽補編이 있어 駕洛國·渤海國·日本國·琉球國의 世系를 기술하였고, 編下에는 渤海國州郡과 日本州道の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이는 이덕무 자신의 저술로서 그의 관심분야에 대한 別考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靑莊館全書》 권64·65 《蜻蜒國志》로 정리되었다. 그밖에 한두 글자의 출입이 있거나 내용배치 상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 내용은 동일하다.

(10) 李泰鎮, 1982 <海東釋史의 學術史的 검토> 《震檀學報》 53·54合, p. 238.

(11) 《紀年兒覽》 紀年兒覽總序 중 李德懋 譔

라고 한 이만운의 답에 동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이만운은 자신이 지은 《中國東方紀年兒覽》을 내보였다. 이때 이만운은 다만 小兒들과 더불어 이 책을 펼쳐 보고 있었을 뿐 감히 가벼이 사람들에게 보이지는 않았었다. 이 덕무는 이 책을 보고 난 후

단지 童孺만이 관람할 것이 아닙니다. 비록 대인의 經國의 학이라도 또한 이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¹²⁾

라 하고 한 통을 謄寫한 후 세상에 전하기를 간절히 요청하였다. 이에 이만운이 共修하자고 받아 들여 어덕무에게 교정과 윤문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2개월 동안의 劬勞를 거쳐 1777년 초겨울에 垂成되었다. 이어 儒士들이 줄지어 謄錄하여 감으로써 세상에 전해 지게 되었다. 이만운의 自叙는 이듬해에 쓰여졌다.

결국 《紀年兒覽》은 이만운의 撰편인 《中國東方紀年兒覽》을 이덕무가 이만운의 부탁으로 교열, 윤문하고 이를 다시 이만운이 재정리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이덕무는 그후 외국관계의 紀年 등 2편을 더 편찬하고 이를 덧붙여 《靑莊館全書》본으로 하였던 듯하다.⁽¹³⁾

2. 作史原則

《紀年兒覽》의 체제 및 서술원칙을 밝히고 있는 범례⁽¹⁴⁾를 통해 그 作史原則의 특성을 실용성 즉 역사사실 전달의 효율성이란 점과 아동용 史書란 두 측면에서 살펴 보도록 하자.

「唐李勣既平高句麗 聚東方典籍於平壤 忌其文物不讓中朝 舉而焚之 新羅之末 甄萱據完山 輸置三國之遺書 及其敗也 蕩爲灰燼 此三千年來 二大厄也」

이와 같은 내용은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권5 「大東書厄辨證說」에서도 10대 書厄을 변증하는 가운데 이 두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申采浩도 〈朝鮮民族의 全盛時代〉(《丹齋申采浩全集》中, p.143), 〈萬里長城이 뉘 것이냐〉(같은 책, 別集, p.40), 〈舊書蒐集의 必要〉(같은 책, 別集, p.171) 등 자신의 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면서 《紀年兒覽》에서 인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2) 《紀年兒覽》 紀年兒覽總序 중 李德懋 撰

「不但童孺之所可觀覽 雖大人經國之學 亦不外是」

(13) 《국역 분류 오주연문장전산고》 XIX 경사편4 사적류1 사적총설, p.117 참조.

(14) 이하에서는 편의상 권1의 「紀年兒覽凡例」를 '범례 I', 로 권5의 「紀年兒覽東國凡例」를 '범례 II'로 간략히 하여, 배열순서에 따라 임의로 일련번호를 붙였다.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범례의 원문을 일일이 밝히지 않았고 본문 가운데 번호로써 표시하였다.

수록내용의 구분원칙과 순서에 대한 규정은 범례 I의 4에⁽¹⁵⁾ 보인다. 즉 姓名, 字號, 生卒, 在位, 享年, 諡號를 머리단에 分註하고, 그 다음에 派系 后妃, 陵墓, 故實의 순으로 적고 있다. 異同이 있어 辨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말단에 「攷異」항을 두어 論覈하였다. 두 범례에서는 대체로 帝·王의 名號, 사료비판, 年表法, 世系圖, 歷代地界 그리고 正統과 僭偽의 기재 등에 대한 서술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作史原則 중 가장 주목되는 특징은 실용성의 추구에 있다.

이만운은 그의 自叙에서 千世의 史牒은 극히 넓은데, 有限의 聰明으로 極博한 史牒을 망라하여 본다는 것은 다만 정신을 疲敝하게 할 뿐, 마침내 이롭이 없는 부질없는 짓⁽¹⁶⁾이라고 하여 방대한 양의 역사기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헤아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하고 그 답으로서 《紀年兒覽》을 편찬하였다고 하였다. ‘開卷瞭然’⁽¹⁷⁾ 즉 역사사실 전달의 효율성을 편찬의 일차적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다.

그 史實전달의 효율성 즉 실용성의 대표적 사례는 世年表 방식의 채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紀年兒覽》에서 채택하고 있는 세년표의 방식은 司馬遷의 《史記》에서 發源하였고 邵康節의 《皇極經世書》에서 取材하였다.⁽¹⁸⁾ 범례 I의 13은

唐堯 이하는 아래 부분을 橫間으로 잘라 우리나라의 檀君 몇년에 해당하는가를 細書하였고 新羅, 高麗 그리고 昭代(조선-필자)에 이르러는 각 세대마다 적어서 요컨대 중국의 어느 대가 우리나라의 어느 왕에 해당하는가를, 살피는 자로 하여금 알아서 쉽게 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⁹⁾

(15) 《紀年兒覽》범례 I의 4

「姓名字號 生卒在位 享壽諡號 分註於首段 其次則派系 其次則后妃 其次陵墓 其次故實 而若有同異之可下者 則亦以攷異論覈末段」

(16) 같은 책, 紀年兒覽總序 중 李萬運自叙

「一人之聰明有限 千世之史牒極博…… 今夫將有限之聰明 總極博之史牒 網羅囊括 赫赫若前日事 則祇自疲精敝神 終於無成 多見其不知量也」

(17) 같은 책, 紀年兒覽總序 중 李萬運自叙

「間取諸家史牒 略記歷代沿革皇王統系 刪繁就簡 領略梗槩 …… 罔一或漏 開卷瞭然」

(18) 같은 책, 紀年兒覽總序 중 李萬運自叙

「槩是書也 發源乎子長氏世年表 取材乎邵先生皇極編」

(19) 같은 책, 범례 I의 13

「自唐堯以下 下方截作橫間 細書東國檀君幾年 至于羅麗昭代 隨世隨書 要知中朝之某代 當東國之某王 俾覽者 易以參互攷據」

라고 되어 있다. 이는 이만운이

學士·文人들이 명물·도수의 분별에 소홀하여 중국의 연대는 대강 알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도리어 까마득히 알지 못하니 이것이 어찌 祖父의 年甲을 기억하지 못함과 무엇이 다르겠는가⁽²⁰⁾

라는 스스로의 탄식이 역사서술에 있어서 구체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世年表의 방식은 考覽의 편이성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실용성에 입각한 歷史像 再構成의 결과 나타난 화이관 극복의 단초라 할 수 있겠다. 즉 중국과 우리나라를 화이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객관적 시기 비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동방기년에서는 역으로 중국의 경우를 부기하고 있음에서 더욱 분명히 확인될 수 있다. 범례 II의 3에서는

단군 이하는 왼쪽의 井間 밖에 가로로 중국 세대를 적되, 箕子·衛滿·四郡·二府·三韓·三國으로부터 高麗와 本朝(조선-필자)에 이르기까지 세대에 따라 적어서 우리나라의 어느 왕이 중국의 어느 세대에 해당하는가를 알도록 하였다⁽²¹⁾

라고 함에서 저자의 일관된 뜻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걸음 더 나아가 三國의 경우에도 서로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은 양식을 취하였다.⁽²²⁾ 이 점 실용성에서 시기비교의 측면을 살린 年表로서의 기본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²³⁾

또한 讀史者의 편의를 위한 간결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점 역시 실용성의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즉 智證王 이전 신라의 王號는 居西干, 次次雄, 尼師今, 麻立干 등의 호칭으로 불리웠으나 《紀年兒覽》에서는 《東國通鑑》

(20) 같은 책, 紀年兒覽總序 중 李德懋 撰

「學士文人 脫略於名數之辨 粗識中朝年代 而於本國 則顯茫然不識 此何異不記 祖父之年甲者耶」

(21) 같은 책, 범례 II의 3

「自檀君以下 上方井間外橫行上 書中朝世代 箕子衛滿四郡三韓三國 下逮勝國本朝 隨世隨書 俾知東方之某王 當中國之某也」

(22) 같은 조

「至若三國瓜分之時 又截下方 而橫間之 如新羅某王 則下方書高句麗某王 百濟某王 高句麗百濟亦然 以爲參攷通融 庶免糾紛疑晦之弊」

라 하여 三國 對比年表의 기재양식을 밝히고 있다.

(23) 중국사와 한국사를 年表 형식으로 정리한 史書로는 《紀年兒覽》 이전에도 《史記》의 年表를 祖述한 徐居正의 《歷代年表》나 邵康節의 《皇極經世書》의 緒餘를 취한 鄭述의 《歷代紀年》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金恒洙, 1986 <寒岡 鄭述의 學問과 《歷代紀年》> 《韓國學報》 45, pp. 51~56 참조). 그러나 그 직접적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더구나 삼국의 기년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紀年兒覽》의 독창적 양식이었다.

의 예에 따라 모두 ‘王’이라고 씌으로써 혼동의 환우를 없도록 하였다(범례 II의 4). 또 東國地界를 기록함에 있어서 兩都의 里와 北路의 社, 西關의 坊 등은 號名은 비록 다르나 모두 面을 지칭하는 까닭에 일률적으로 面이라고 적고 있다(범례 II의 10). 直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어 상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錯雜이나 混殺의 폐단을 면하게 하고자 하였다. 시기나 지역에 따라 명칭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의미의 것이라면 그 명칭을 단일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실용성에 입각한 편의주의는 歷代帝王의 派系圖를 만들어 목록 뒤에 붙임으로써 考覽의 편의를 기하고 있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진다(범례 I의 14). 派系圖는 일종의 체계화로서 정통론적 인식과 관련이 깊으나 여기서는 정통론의 부각보다는 일목요연한 계통의 전달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적서에 따른 복잡화로 인한 혼동보다는 교육 및 참조의 편의를 위한 간결성을 취하고 있음은 그밖에도 여러 점에서 찾을 수 있다. 璿源世譜에서는 허다한 勳籍을 다 적는 번잡함을 피하여 元勳 한 사람만을 적고 나머지는 생략한 것이라든가(범례 II의 6), 州縣 가운데 罪人의 胎邑이 되어 일시적으로 降革된 곳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還復되는 까닭에 역시 번거롭게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서도 확인된다(범례 II의 9). 그리고 각 왕대의 주요치적을 기록한 「故實」의 경우에도 大條目만을 간추려 두세자로 그 梗概만을 적고 있다(범례 I의 9).

한편 역사사실의 전달이라는 현재적 필요성에서 나타난 서술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즉 역대의 國都地界를 적되 지금의 某郡 某地는 예전의 어떤 지역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점(범례 I의 17)이나 東國州縣의 경우에도 別號를 적어 前日의 칭호를 알 수 있도록 한 점(범례 II의 10) 등이다. 이러한 현재적 관점에서의 필요성으로 말미암은 원칙 가운데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伏法人에 대한 기재원칙이다. 伏法人은 그 姓字를 抹去해 버림이 東俗의 예이나 시간이 지나면 姓字가 없어져 버려 후인들이 考驗할 수 없는 까닭에 적는다고 하였다. 다만 罪로 인하여 죽은 곳에 淡墨으로 圈抹하고 상세하게 懸註하여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범례 II의 8).

이처럼 역사에 대한 평가, 포폄의 정신을 역사서술의 원칙으로 강고하게 지켜오던 종전의 史書와는 달리 최소한의 道學的 평가는 가하되 그로 인하여 역사적 사실 자체가 훼손되지는 않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믿을 만한 것

은 전하고 의심스러운 것은 함부로 천단하지 않고 미루어 두었다(범례Ⅱ의 5). 또한 異同이 있어 辨別이 필요한 경우에는 「攷異」항에서 논핵하되 그 출처를 밝혔다(범례Ⅰ의 3·4). 그 典據의 대상으로는 正史가 기본이 되고, 그의 각종 史書와 稗官野乘 등도 참고하고 있는 등 비교적 다양한 서적들이 이용되었다(범례Ⅰ의 12). 이만한 자신의 의견은 「謹按」이라 하여 구분하여 두고 있다.

그러면 이처럼 역사서술의 도학적 포범보다는 현재적 입장에 선 역사교육상의 실용성이 강조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 점을 史學의 經學으로부터의 분리란 관점에서 추론하여 보고자 한다.

16·17세기 성리학자들의 역사이해는 유교의 尊華攘夷사상과 綱常의 계층 윤리를 극대화시킨 정통론적 綱目法史學을 따르고 있었다. 이는 사학이 경학에 종속된 결과로서, 역사서술에 있어서 유교적 대의명분에 입각한 가치 평가가 절대적 의미를 지니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하려는 객관적 자세나 폭넓은 문화사적 인식 또는 충실한 자료수집에 입각한 실증적 자세 등 사학의 독자성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조선후기 성리학적 가치체계가 사회전반적으로 동요되어 감에 따라 위와같은 經史體用的 역사인식으로부터의 이탈을 모색하는 현상이 보인다. 이익, 안정복 등에 의한 《資治通鑑綱目》의 비판적 계승 등은 그 단초적 현상들이었다.⁽²⁴⁾ 李種微도 역사와 경학을 經緯관계로 인식함으로써 사학을 단순히 경학의 응용으로만 대하지는 않았다.⁽²⁵⁾ 정약용이 역사적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명분론에 입각한 도덕주의적 역사해석에서 벗어나 지리적 요소를 중시하게 된 것도⁽²⁶⁾ 사학이 경학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 학문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학이 독자적 학문영역을 확보하여 감에 따라 도덕적 윤리적 가치 평가를 지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객관화의 추구라는 지향점을 맞게 되었다. 역사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도 그에 따른 새로운 경향들이 나타났다. 즉 사학의 객관적 인식의 기본전제로서 문헌사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4) 趙 珩, 1985, 앞 논문, pp. 142~147.

(25) 韓永愚, 1987 <18세기 중엽 少論學人 李種微의 歷史認識> 《東洋學》 17, p. 17.

(26) 韓永愚, 1983 <茶山 丁若鏞의 史論과 對外觀> 《金哲俊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知識產業社, p. 661.

사료의 광범한 수집활용을 강조하는 고증학적 문헌비판의 경향이 나타났던 것이다.

따라서 정통론적 역사인식의 관점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정통론에 대하여는 범례 I의 10·11·16의 세 조에서만 간단히 언급하되, 그것도 정통과 참위를 구분하는 도학적 기준에 대한 것은 아니고 다만 기재의 원칙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중국의 경우에 한하였다. 이는 실용성과 그에 따른 객관성이 강조되는 정도에 반비례하여 정통론적 인식이 약화될 수 밖에 없었던 당연한 귀결이었다.

한편 아동용 사서로서 작성된 《紀年兒覽》이 사학으로서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었음은 당시까지의 대표적 아동용 교과서였던 朴世茂의 《童蒙先習》과의 비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童蒙先習》은 전반부는 經을 서술하고 후반부에 中國史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本國史를 간략하게 첨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經과 史를 한데 묶은 것은 經史의 體用관계를 존중한 까닭이었다. 따라서 그 역사 인식은 철저한 尊華意識, 崇儒觀念, 三綱五常에 의한 도덕사관이였다.⁽²⁷⁾ 이에 반하여 《紀年兒覽》은 앞에서 살폈듯이 현재적 실용성에 입각한 객관적 역사서술을 견지하였고, 나아가 經과 史를 분리하여 《紀年兒覽》이 經學의 입문서인 小學처럼 史學의 입문서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²⁸⁾

《紀年兒覽》의 作史상의 또 다른 특징은 간략하게 압축하여 초학자용으로 편찬한 ‘史略型’의 편년체 형태를 취하였다는 점이다. 사략형의 역사서술은 童蒙教育을 위한 교재로서 가장 적합한 체제였다.⁽²⁹⁾ 개화기 교과서의 대부분도 사략형의 편년체로 서술되고 있었다. 편년체적 역사서술은 근대역사학의 성립에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서술방식이었지만 교육적 목적에 제한된다면 사략형이 갖는 교육상의 실용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紀年兒覽》이 문자 그대로 아동용 사서로서 작성된 것임을 염두에 둘 때 서술형식이 사략형 편년강목체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은 매우 시사적이다. 합방 직후인 1911년 朝鮮古書刊行會에서 《紀年兒覽》을 활자화하여 간행하였던 것도 바로 역사사실의 전달에 있어서 지니는 《紀年兒覽》의 편의성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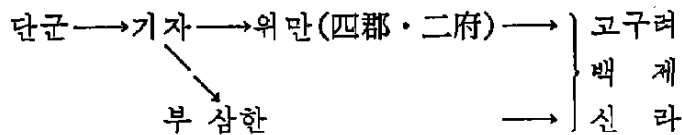
(27) 韓永愚, 1981 <16세기 士林의 道學的 歷史敘述> 《朝鮮前期史學史研究》 서울 大出版部, p. 222.

(28) 註 (65) 참조.

(29) 韓永愚, 1981, 앞 책, p.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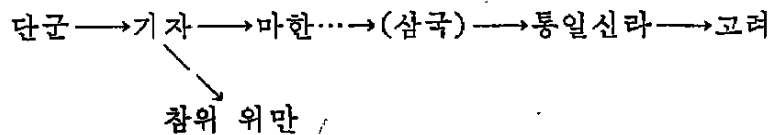
三. 《紀年兒覽》의 古代史 認識

17·18세기 사서에 보이는 고대사에 대한 체계적 인식의 대표적 유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30) 하나는 三朝鮮說로서 조선초기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여 이미 《東國通鑑》에서 체계화되었다. 비록 三國 以前은 「外紀」라 하여 그 역사적 실재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으나 三朝鮮說은 조선전국의 자기합리화과정에서 檀君을 國祖化하고 箕子를 통하여 문화적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경향 속에서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 체계화된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三朝鮮의 계기적 발전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비교적 객관성을 지나면서 조선시기 내내 이어진다.

한편 다른 하나는 정통론에 입각한 역사 이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는 17세기 이후 洪汝河·李瀾·安鼎福·丁若鏞 등 남인학자들에 의해 특히 강조되는 馬韓正統論에 입각한 체계화이다. 즉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포편을 중시하는 《春秋》의 정신을 극단으로 이데올로기화한 朱子綱目史法을 받아들여 나타난 역사해석의 한 유형에 입각한 체계화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립적 역사해석에 대한 관심은 일찌기 近畿學派의 정통론의 전개란 관점에서 연구되었고, (31) 나아가 17·18세기 대표적 사서들의 개별인식의 유형들을 검토함으로써 어느 정도 개괄적인 전개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주목되어 왔던 것은 修山 李種徽의 이원적 체계화였다. 이는 전자의 전통적 인식체계를 계승하면서 아울러 후자의 정통론적 인식도 포괄하는 것으로, 특히 扶餘·高句麗 중심의 역사발전이 중시

(30) 李萬烈, 1974 <17·18세기 史書의 古代史認識> 《韓國史研究》 10 (李佑成·姜萬吉 편, 1976 《韓國의 歷史認識》下에 재수록, pp. 349~353 참조).

(31) 李佑成, 1966 <李朝後期 近畿學派에 있어서의 正統論의 展開> 《歷史學報》 31.

되었던 점에서 주목되었다.⁽³²⁾ 그리고 1910년대 民族主義的 歷史敘述의 하나인 金敎獻의 《神檀實記》(1914)에 소개되었고, 丹齋 申采浩의 고대사 인식에 이어졌다고 평가받아 왔다.⁽³³⁾ 그런데 《紀年兒覽》의 고대사 인식의 체계화도 바로 이원적 체계화의 입장을 보여 주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紀年兒覽》에서는 강목체를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긴 하나 정통론의 경향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 이제 《紀年兒覽》에 나타난 고대사 인식의 대체를 살펴 보고 그 인식이 갖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추적함으로써 그 사학사적 위치를 매길 수 있는 단서로 삼고자 한다.

먼저 고대사의 서술내용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檀君朝鮮(傳世 未詳, 1211年)

箕子朝鮮(41世, 929年)

衛滿朝鮮(3世, 87年)

(四郡)樂浪, 臨屯, 玄菟, 眞番

(二府)平州, 東部

(三韓)馬韓(傳世 未詳, 203年)

辰韓(傳世 未詳, 138年)

下韓(傳世 未詳, 156年)

(三國)新羅(統合前 29世, 724年, 統合後 27世, 268年)

高句麗(28世, 705年)

百濟(31世, 678年)

高麗(34世, 475年)⁽³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삼조선의 계승은 뚜렷하게 나타나되 마한정통의 입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제 각각의 世紀를 살펴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계화하려 하였는가 알아 보자.⁽³⁵⁾

먼저 三朝鮮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단군조선은 世稱 前朝鮮이라 하였다. 단군의 諱는 王儉이고 祖는 桓因으로 俗號는 天神이며 父는 桓雄으로 俗號

(32) 李萬烈, 1974, 앞 논문 참조.

金哲坡, 1974 <修山 李種徽의 史學> 《東方學志》 15 참조.

(33) 韓永愚, 1980 <1910년대의 民族主義的 歷史敘述> 《韓國文化》 1, p. 118.

(34) 이것은 권5 「紀年兒覽東國目錄」에 기재된 그대로이다. 내용 서술에 있어서는 강목법에 따라 上段을 조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삼한 중 마한과 진한은 삼조선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고 삼국은 신라, 고구려, 백제의 순으로 실려 있으나 등급의 차는 없다.

(35) 이하 《紀年兒覽》 권5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원문 인용은 생략하였다.

는 神市라고 하였다.⁽³⁶⁾ 그리고 「攷異」에서는 조선의 名號에 대하여 《史記》의 ‘在東表日出之地’라는 설과 《索隱》의 ‘有汕水’라는 설을 제시하고 있으며, 《三國遺事》에서 보이는 古記의 단군관계기사를 요약 轉載하였다. 그리고 단군의 壽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즉 단군의 壽가 1048년이라고 한 古史에서 단군은 商 武丁 8년 乙未에 神이 되었다고 보았으나 武丁 8년은 甲子이지 乙未가 아니다. 따라서 단군의 壽는(武丁 8년이라면) 1017년이지 1048년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乙未 및 1048년을 서로 상고한다면 마땅히 武丁 39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⁷⁾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군의 壽가 1048년이라고 함은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단군의 증손 동부여 왕 帶素는 고구려 大武王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大武王은 漢의 光武대에 해당하므로 단군의 아들 解夫婁로부터 帶素까지는 3세에 지나지 않으나 武丁부터 光武까지는 殷, 周, 秦, 兩漢을 거치는 1339년에 이르러니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權近의 應製詩(몇 대 이은 지 모르겠나/지낸 햇수는 천이 넘더라)를 인용하여 그 설로서 實記로 삼았다. 한편 단군의 后妃로는 非西岬 河伯女라 하였고 그 사이에서 解夫婁가 태어나 북부여의 왕이 되고 증손 帶素 대에 이르러 동부여에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고구려 시조 朱蒙은 동부여왕 金蛙와 柳花 河伯女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동부여는 고구려에 편입되며 따라서 단군조선은 북부여, 동부여를 거쳐 고구려로 이어지는 것으로 체계화되었다.

다음 箕子朝鮮은 世稱 後朝鮮이라 부른다고 전제한 다음, 기자는 商王 太丁의 아들로써 周 武王 元年 己卯에 周를 피하여 조선에 들어가자 武王이 이를 봉하였으며 국호는 역시 조선이라 칭하였다고 보았다. 「故實」로는 ‘設八條教’, ‘畫井田’, ‘作麥秀歌’ 등을 나열하였고, 40세손 否가 秦에 복속되고 그 아들 準이 뒤를 이었으나 衛滿에 쫓기어 南奔하여 馬韓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攷異」항에서는 우선 東史에 繼序의 君은 현저하지 않으나 新刊《幸州奇氏族譜》를 보면 箕子 이후 世序를 밝히고 있다고 하여 그것을

(36) 申采浩는 《紀年兒覽》의 이 부분을 주요한 근거로 삼아 〈東國古代仙敎考〉(《丹齋申采浩全集》別集, pp. 47~50.)에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仙敎의 성행을 추론하였다(韓永愚, 1980 〈韓末에 있어서의 申采浩의 歷史認識〉《丹齋 申采浩先生 誕辰 100周年 紀念論集》 pp. 176~177. 참조).

(37) 《歷代紀年》에서 鄭述는 武丁 8년은 甲子가 아니라 乙未이며, 1048년은 武丁 8년에 准한다고 하여 《紀年兒覽》과는 다른 고증을 하고 있다(金恒洙, 앞 논문, p. 57 참조). 단군조선에 대한 역사인식의 변천에 대하여는 全炯澤, 1980 〈朝鮮後期 史書의 檀君朝鮮 敘述〉《韓國學報》 21에서 상세하게 검토되었다.

전재하였다. 다만 세가지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즉 周武王 己卯에 기자가 비로소 건국하였고 漢 惠帝 丁未에 準이 마한왕이 되었으니 이를 합하면 929년이 된다. 그런데 《幸州奇譜》에는 41대 1036년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이 그 의문의 첫째이다. 또 41대 중 東史에는 다만 箕否, 箕準 양대의 이름이 있는데 《幸州奇譜》에는 箕否가 없음이 의문의 둘째이다. 그리고 삼국 중엽 이후에야 비로소 諡法이 있었는데 여기에 열록된 것들은 모두 諡號에 가까운 것들이니 이것이 그 의문의 셋째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箕子世序는 아마도 好事者의 杜撰으로 보이나 이미 간행된 譜牒에 실려 있는 까닭에 적어 놓되, 안목을 갖춘 자가 있어 辨破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箕子朝鮮의 世系에 대하여는 이덕무의 《靑莊館全書》 권55 《叢葉記》 2에도 「箕子朝鮮世系」라 하여 상세히 밝혀 놓고 있다. 즉 이덕무는 趙衍龜로부터 기자이후의 시호와 휘, 재위연대에 대한 기록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비록 매우 荒誕한 것이었으나 우선 기록해서 《竹書》나 《路史》같은 奇聞에 답하려 한다”⁽³⁸⁾라는 단서를 달고 그 세계를 기록해 놓았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그는 안정복의 《東史綱目》에 기자의 世家가 실려있었는데 후에 刪拔되었다고 하였고, 또 이만운의 《紀年兒覽》에 이덕무 자신이 이 기자세계를 부록하여 의문을 전하는 예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전대 당시에 이 기자세계는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었던 내용으로 그 진실성에 대한 의문 역시 보편적이었던 것 같다. 따라서

舊史의 황괴불경한 말은 일체 산삭하고, 따로 辨證 1편을 만들었는데, 거짓을 보이기 위해 쓴 것도 있고 의심스러운 것을 전하기 위해 쓴 것도 있다⁽³⁹⁾

라는 법례를 갖는 《東史綱目》에서는 결국 수록되지 못하였고 《紀年兒覽》의 增訂작업 가운데 이덕무 자신에 의하여 부록되어 졌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만운의 원 저작인 《中國東方紀年兒覽》에는 기자세계가 없었는데 이덕무의 손을 거치면서 수록되었고 이만운 자신도 그것을 받아들여, 다만 몇가지 의문에 관한 자신의 按說을 덧붙이는 정도로 하여 수록하게 되었던 같다.

다음 衛滿朝鮮은 《東史綱目》에서도

(38) 《靑莊館全書》 권55, 《叢葉記》 2 箕子朝鮮世系

「雖甚荒誕 而姑記之 以備竹書路史之異聞焉」

(39) 《東史綱目》 凡例, 災祥조

「舊史荒怪不經之說 一切刪去 別爲辨證一篇 而有以示僞而書者 有以傳疑而書者」

위만은 篡賊인데 《東國通鑑》에는 단군·기자와 함께 삼조선이라 일컬어서 마치 그와 덕도 같고 의리도 같은 것처럼 하였으나, 이제 貶黜하여 僭國한 예에 따랐다⁽⁴⁰⁾

고 하듯이 강목법에 입각한 대부분의 사서에서는 참위의 예로 취급되고 있었다. 그런데 《紀年兒覽》에서는 전혀 그러한 평가는 없이 단군이나 기자와 동렬로 서술되고 있다. 다만 「攷異」에서는 東史에서 위만이 진녘다고 하는 浪水를 대동강이라고 보았으나, 대동강은 평양부의 東1리에 있는즉, 반드시 패수를 건너 準을 뺏박할 이치가 없다고 하여 이 패수는 마땅히 압록강이 되어야 한다고 변증함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위만조선의 속국으로 尼谿國을 부록하고 있다.

四郡과 二府에 대하여는 다만 지리고증 위주의 변증이 있다. 四郡의 治所는 樂浪이 평양성, 玄菟가 東沃沮로 지금의 함흥, 臨屯은 東曉縣으로 지금의 강릉, 그리고 眞番은 靑縣으로 지금의 遼東地라고 비정하였다.

한편 삼한 중 마한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마한은 기준이 위만을 피하여 漢 惠帝 원년 丁未에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와 金馬渚(지금의 益山)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마한이라고 하고 54국을 통솔하였다고 하였다. 그 속호는 虎康王이며 新莽 6년 己巳에 百濟王 溫祚에 의해 멸망되었으니 歷年은 203년이라 하였다. 《後漢書》를 인용하여 기준이 위만의 공격을 받아 바다를 건너 내려와 마한을 攻破하고 스스로 韓王이 되었으나 그후 絶滅하였고, 마한인이 다시 자립하여 辰王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어서 東史에 기준으로서 마한의 시조를 삼고 虎康王이라 불렀으나 繼序의 畧은 전함이 없었는데 이제 《幸州奇譜》를 상고하니 虎康王은 없고 康王 卓으로 머리를 삼고 그 아래 7왕을 열록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기자조선의 예대로 전재하였다. 또 東史에 마한은 丁未에 시작해서 新莽 己巳에 끝나니 합 203년이라고 하였는데 《幸州奇譜》에서는 漢 惠帝 戊申에 서고, 成帝 癸卯에 백제왕 온조에 의해 멸망되었다고 하였으니 176년이 된다고 하여 모두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다만 간행된 譜牒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까닭에 후일의 변증을 기대하면서 열록하였다. 이와같이 이만운은 기자 및 마한의 세계에 대하여는 극히 불신의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서도 《紀年兒覽》에 수록한 것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아마도 이만운이 이덕무의 증정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수용

(40) 같은 책, 凡例 統系조

「衛滿篡賊也 通鑑與檀箕 共稱爲三朝鮮 有若德同義均者 然今黜之 依僭國例」

하였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된다.

삼한의 기사에 뒤 이어 「三朝鮮所統諸屬國」으로 扶餘國·東沃沮國·北沃沮國·南沃沮國·辰國·濊國·貊國·高句麗國 등 8국을 부기하였다. 이 중 진국을 삼조선의 속국으로 지목한 점은 주목된다. 진국은 目支國을 다스리며 그 후 마한이 되었다고 하며, 《後漢書》를 인용하여 삼한 땅 4천여리가 모두 옛 진국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마한조에 “마한인이 다시 자립하여 진왕이 되었다”는 기록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기준 이전에 마한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뿐 아니라 이를 진국으로 보아 삼조선의 속국으로 분류하기까지 하였다. 마한정통론에 입각한 이해와는 전연 궤를 달리함을 볼 수 있다. 또 고구려국은 삼국의 고구려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함흥부의 동북쪽에 있다가 漢武帝가 조선을 멸할 때 高句麗縣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단군의 맥이 부여를 거쳐 삼국 중의 고구려로 이어진다고 보았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또 하나 특기할 사항은 渤海에 대한 인식이다. 발해국을 沸流國 등 17국과 함께 고구려의 속국으로 분류하였다. 비록 고구려의 속국으로 삼국에 비하면 격이 떨어지나 발해사를 한국사의 체계 내에서 이해함으로써 민족사의 범주에 편입시키고 있었다. 이는 정통론 사학이 점차 극복되던 18세기말·19세기초에 나타나는 발해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즉 민족문화사화하는 경향에 대체로 일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¹⁾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紀年兒覽》의 고대사 인식 체계는 강목법을 평가의 기준으로 하고는 있으나 정통론의 경향은 뚜렷하지 않다. 정통론 史書들에서 보이는 마한정통론적 관점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이종휘의 견해와 유사하게 단군조선—부여—고구려의 계통에 주목하였다. 그러면서도 이종휘와는 달리 기자—마한으로의 연결보다는 그 단절을 지적하고 있다. 구태여 어느 한 설에의 유사성을 들자면 이종휘의 입장에 가깝다. 그 점은 기자 세계를 다루고 있는 점이라든가, 《史記》의 영향을 공통적으로 받아⁽⁴²⁾ 世年表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본다면 무리한 평가는 아니리라 생각한다.

(41) 李萬烈, 1981 <朝鮮後期の 渤海史 認識> 《韓祐勛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p. 463 참조.

(42) 이종휘의 《東史》가 사마천의 《史記》 형식을 굴절시킴이 없이 한국사에 적용함으로써 한국사의 권위를 격상시키려는 의도를 보였음은 韓永愚, 1987, 앞 논문, pp. 14~17에서 논증하고 있다.

양난과 명의 멸망이라는 국내외의 상황 변화 속에서 전개되던 정통론적 인식은 대외적으로는 對淸관계의 명분론으로서, 대내적으로는 체제 재정립을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역할하였다. 이와 같은 정통론에 입각한 인식 체계는 19세기를 전후한 국제질서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그 前시기에 對淸관계에서의 위기의식 하에서 전개되던 정통론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는 희석화되었다. 또한 숙종대의 換局정치기를 지나 영·정조대의 蕩平政局 하에서는 일률적인 정통론의 필요성은 약화되었다.⁽⁴³⁾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온 《紀年兒覽》은 정통론의 잔재는 보이나 극단적 정통론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종합하면서 나름대로의 체계화를 세우고자 함으로써 새로운 사풍을 형성하였다.

정통론은 역사과학에 있어서 체계를 갖추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그것이 갖는 명분론적 성향 때문에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축소시키는 단점도 보였다. 그러다가 이때를 전후하여 위와같은 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 역사를 객관화시켜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됨으로써 정통론적 해석으로부터 벗어나 역사이해의 超然性을 이룰 수 있었다고 보인다.

四. 《紀年兒覽》의 史學史的 位置

《紀年兒覽》의 편찬과 作史原則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紀年兒覽》이 갖는 특징이 실용성과 사략형의 편년강목체에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실용성의 내용들로는 세년표의 채택, 간결성, 체계성, 현재적 필요성, 실증성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고대사 인식체계에 있어서 정통론 의식의 약화 경향을 추정하여 보았다. 이제 18세기 말기의 史書로서의 《紀年兒覽》이 갖는 사학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앞 장과 관련시켜 살펴 보도록 하겠다.

象數學, '經濟'學, 名物度數에 대한 연구 등 실용적 학문은 心性論과 禮論 위주의 17·18세기 조선학계에 잠재되어 있다가 18세기에 들어 오면서 정통 주자학의 洛論系에서 주목하기 시작하여 점차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는 18세기 淸朝 학계를 대표하던 考證學=漢學=名物學의 학문성향과 유사하였다. 왜냐하면 조선학자들에 의해 흔히 한학이라 불리우던 청대 고증

(43) 朴光用, 1980 <箕子朝鮮에 대한 認識의 變遷> 《韓國史論》6, 서울大 國史學科, pp. 276~281 참조.

학은 그 주된 내용이 宋學 즉 朱子學의 ‘性命義理’와 대비되는 뜻에서 ‘名物度數’로 파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⁴⁴⁾ 이덕무의 경우에도 ‘小學·名物’ 또는 ‘爾雅·說文之學’에 특장을 발휘하여 고증학적 학문경향에 크게 접근하고 있었다.⁽⁴⁵⁾

《紀年兒覽》은 바로 이러한 고증학적 학풍의 전개 속에서 나타난 史書였다. 이덕무는 이만운에 대하여 “이 어찌 今世의 顧亭林·朱竹垞가 아니겠는가”⁽⁴⁶⁾라 하여 창조 고증학 성립 초기의 대표적 학자인 顧炎武·朱彝尊에 비견하였다. 顧·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조정과 국가의 典章에 대하여 精微한 것을 분명하게 밝혔고 고금의 모든 것을 널리 알아서 근본에 입각하여 실용할 수 있도록 힘썼다⁽⁴⁷⁾

고 하였고 바로 그와 같은 점의 유사성을 지적하여 금세의 顧·朱라고 할 정도로 이만운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였다. 즉 이만운 역시

국조의 문헌에 익숙하고, 고사를 인용할 적에 분명하게 증거가 있어 날짜까지도 거의 틀리지 않는다⁽⁴⁸⁾

는 점에 있어서 고염무·주이존의 실용에 힘쓰고 상통하기 때문이었다.

고염무(1613~1682)는 창조학문의 개조로서 송학이 근거하였던 경전자체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송학 전복의 단초를 이루었던 인물이었다. 고염무의 역사에 관한 의론의 특색은 고증을 주로한 점, 금석에 관한 학문, 그리고 지리학을 성행시킨 점에 있었다.⁽⁴⁹⁾ 《紀年兒覽》에서 「攷異」항을 설정하여 고증학적 면모를 보인 점이나 「歷代地界」등 지리에 관한 조항을 다수 설정한 점 등은 그 영향의 일단으로 보인다.

(44) 《五洲衍文長箋散稿》序

「大抵名物度數之術 縱不及性命義理之學 亦不可偏廢 不講視若異端也」

(45) 유봉학, 1982 <北學思想의 形成과 그 性格—湛軒 洪大容과 燕巖 朴趾源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8, 서울大 國史學科, p. 222 참조.

(46) 《紀年兒覽》紀年兒覽總序 중 李德懋 撰

「斯(이만운—필자) 豈非所謂今世之顧朱耶」

(47) 《紀年兒覽》紀年兒覽總序 중 李德懋 撰

「顧亭林朱竹垞之書 朝章國典 辨覈精微 博極今古 元元本本務歸實用」

(48) 《紀年兒覽》紀年兒覽總序 중 李德懋 撰

「先生(金用謙—필자)曰 李子萬運 老儒也 嫻於國朝文獻 援引古事犁然有據 幾不錯其日月」

(49) 內藤虎次郎, 1967 《支那史學史》 12章 <清朝の史學> 중 3. 顧炎武, pp. 386~391 참조.

한편 주이존(1629~1709)은 《明史》의 편찬에 참여하여 《宋史》 이후에 세워졌던 「道學傳」을 폐기하였던 인물이었다. 즉 당시 《明史》 편찬에 있어서 의론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강목법의 적용여부와 「道學傳」의 치폐문제였다. 《通鑑綱目》은 朱子 一家의 書이지 史家의 書는 아니라 하여 正史 편찬에의 적용은 불가하다고 여겨 송학으로부터의 탈각현상을 보였다. 주이존은 더욱 명백히 송학에 반대하여 「道學傳」을 세우지 않을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주자학만의 「道學傳」을 세우지 않고 「儒林傳」 중에 포함되도록 하였다.⁽⁵⁰⁾ 따라서 이만운을 주이존에 비견함은 이만운의 학문내용이 주자일변도의 경향에서 이탈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⁵¹⁾

이처럼 박문에 입각한 실용성을 학문적 특징으로 지적한 이만운에 대한 평가는 곧 《紀年兒覽》이 청조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 쓰여졌음을 뜻한다. 당시의 박문의 학풍을 대변하는 類書로는 李瀾의 《星湖僿說》이나 安鼎福의 《雜同散異》 등도 있었으나 그것들은 類目 자체의 定型性이 약하고 典據에 대한 관심도 적었다. 그런데 북학과 계열의 類書인 이덕무의 《菴業記》나 徐有築⁽⁵²⁾의 《林園十六志》 등은 박문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考據에 대한 의식

(50) 內藤虎次郎, 1967, 같은 책, 같은 장 중 1. 明史の編纂, pp.375~380 참조.

(51) 이덕무는 「宋史奎儒林傳論」, 「讀宋史儒林傳」(《靑莊館全書》 권 21)에서 《宋史》의 儒林傳을 평가하면서 儒家를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性理를 연구하는 儒家, 名分과 行實을 힘써 닦는 儒家, 博聞과 著述에 힘쓰는 儒家 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을 각각 道學傳, 儒林傳, 文苑傳으로 나누어 세운 《宋史》의 義例의 엄정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렇지만 大儒란 “여러 성인의 글을 널리 통하고 名理를 탐구하여 한가지라도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지에 이르른”(至若博通群聖人之書 探蹟名理 耻一物之不知 始可謂之大儒)자로서 性理·名行·著述의 세가지를 순연히 갖추어 중요시하였다. 朱彝尊만큼 朱子를 객관화하여 평가할 수는 없었지만 博聞·著述을 儒者의 자격요건으로서 중시하고 있음은 청조 고증학에 정도되었던 그의 학문성향을 보이는 동시에, 제한적이거나 性理 위주의 주자학에서 벗어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가 이만운을 주이존에 비견함은 도학전의 치폐와 같은 주자학에의 도전이란 점보다는 博聞·著述이란 측면에서 차지하는 위치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지적은 당시의 학문 분위기를 고려에 넣는다면 경직된 주자학으로부터의 탈각을 의미한다고 하여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52) 徐有築도 또한 이만운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즉 《增訂文獻備考》의 초고가 완성되고 난 후인 1796년(正祖 20)에 정조는 1776년(정조 즉위년) 이후의 《日省錄》의 내용이 보충되어 있지 않았음을 들어 欠典本으로 여겨, 다시 局을 개설하고 冊名과 義例를 따로 撰定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때 이만운은 이미 노인으로서 《日省錄》을 전력하여 考閱할 수 없었다. 이에 정조는 閣臣 중 젊은 자를 택하여 그 일을 돕게 하였다. 이때 奎章閣 待敎로 있던 서유구가 差定되어 이만운의 일을 도왔다. 다만 이듬해 봄 이만운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었다. 이 과정에서 서유구는 이만운의 학문적 영향을 받았으리라 추측된다.

도 강하였다.⁽⁵³⁾ 《紀年兒覽》역시 전거를 제시함으로써 실증성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더구나 이만운이 대표적 類書의 하나인 《文獻備考》增訂 작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紀年兒覽》이 북학과 계열의 類書學的 분위기와 상통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편찬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紀年兒覽》은 당시 청조 고증학과의 연계 위에서 북학사상 형성의 단계에 있던 洛論系 학자들의 학문경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북학과의 역사인식에 접근하는 한 예로서 주목된다.

한편 《紀年兒覽》이 채택하고 있는 年表法도 고증학의 한 특징인 象數學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이만운이 《紀年兒覽》을 편찬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로서 그 스스로가 “學士·文人이 名物·度數의 분별을 소홀히 하여”⁽⁵⁴⁾ 중국의 연대는 알면서도 우리의 것은 모른다고 하여 祖父의 年甲을 알아야 하듯이 우리나라의 歷代紀年을 전하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고 이덕무에게 말하였다. 李圭景은 《紀年兒覽》을 평하면서

중국은 태고시대로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단군으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에 걸쳐 상세하게 年紀를 작성하였으며, 자기의 書法을 약간 가미하여 중국과 우리나라의 年紀 아래에다 또 각각 역대의 地界와 郡邑의 총수를 붙여 놓았으므로 諸家의 기년에 비교하면 가장 정밀하고 간략하다⁽⁵⁵⁾

라고 하여 年紀 즉 世年表가 작성상의 요체를 얻고 있음을 《紀年兒覽》의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이 세년표는 司馬遷의 《史記》에서 발원하고 있다.⁽⁵⁶⁾ 사마천은

黃帝 이래 모두 년수가 있는데 그 帝王의 相承을 稽考하여 보면 古文은 거의 같지 않아 괴이하다. 그런데도 孔子는 그 년월의 차례를 논의하지 않았으니 어찌 공히하지 않는가⁽⁵⁷⁾

(53) 李泰鎮, 1982, 앞 논문 p. 238 참조.

(54) 註 (20) 참조.

(55) 《五洲衍文長箋散稿》 권 50 東國諸家史類

「紀年兒覽 李萬運撰 中國自太古至于清 東國自檀君至于本朝 詳計年紀 畧寓書法 中國東國下 又各附歷代地界郡邑總數 較諸家紀年 最爲精簡」

(56) 註 (18) 참조.

(57) 《史記》 권13 三代世表第一

「黃帝以來皆有年數 稽其曆譜 終始五德之傳 古文咸不同 乖異 夫子之弗論次其年月 豈虛哉」

라 하고, 또

儒者는 그 義를 판단하고, 馳說하는 자는 辭說을 마음내키는대로 할 뿐, 끝내 그 처음과 끝을 중관함에는 힘쓰지 않는다. 曆人은 그 년월을 취하고, 數家는 神運에 능할 뿐이다. 譜牒만이 世諡를 적는데 그 사실이 간략하니, 진요하거나 난해한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⁵⁸⁾

라 하여 유교적 역사서술이 지니는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보첩이 지니는 장점을 역대의 년수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음에서 찾았다. 그러한 취지에서 十年表를 작성하였다. 이규경은 《史記》를 萬古에 홀로 우뚝한 것이 라 하여 중시하는 중에서도 특히 주요한 공적외 하나로서 이 十年表를 들고 있다. 즉

年은 經이되고 月은 緯가 되어 한번 보면 명료하게 알 수 있으니, 역사서를 쓰는 체제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⁵⁹⁾

라 하여 년표법의 우수성을 극찬하고 있다.⁽⁶⁰⁾

이규경은 이덕무의 손자로서 명물도수의 학을 무엇보다도 중시하였다. 이러한 이규경이 《史記》의 명물도수적 측면인 년표법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紀年兒覽》을 평하면서도 역시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었음은 象數學的 학문 분위기에서 《紀年兒覽》이 작성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년표법의 중시는 修山 李種徽의 경우에도 보인다. 그는 《東史》의 「三朝鮮年表」에서

司馬遷이 처음으로 紀傳體로서 編年體의 체제를 變改하였지만 또한 編年體를 마

(58) 《史記》 권14 十二諸侯年表第二

「太史公曰 儒者斷其義 馳說者聽其辭 不務綜其終始 曆人取其年月 數家隆於神運 譜牒獨記世諡 其辭略 欲一觀諸要難」

(59) 《국역 분류 오주연문장전산고》 XIX 경사편4 사적류1 사적총설 pp.16~21 참조.

(60) 丁若鏞도 《紀年兒覽》에 대한 평에서 「年表之法 昉於司馬遷 誠紀年之妙法也」(《與猶堂全書》 제1집 詩文集 跋「跋紀年兒覽」)라 하여 년표법의 우수성을 지적하였다. 다만 정약용은 그후 「寄二兒」(《與猶堂全書》 제1집 詩文集 書)란 편지에서 「紀年兒覽 吾亦始以爲佳書 今乃仔細看 所見不如所聞也 大抵本意在於示該洽爭多聞 不于實用實理上 立得一副當繩尺 故其所著之煩而寡 要約而多蔓 如是也」라 하여 그 실용성이 세간에서의 평가만 같지 않다고 하고 몇몇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정약용의 《紀年兒覽》에 대한 평가가 일면 부정적이었던 것은 아마도 그의 역사인식 체계가 北學派의 그것과 대조적이었음에 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韓永愚, 1983 <茶山 丁若鏞의 史論과 對外觀> 《金哲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p. 661 참조).

침내 폐기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다만 년표로서 나타내되 累牘聯簡을 그 번거로움을 꺼리지 않고, 혹 10년동안 아무 일이 없거나 혹 100년 동안 기록할 일이 없으면 다만 그 년수를 적었고 秦·楚대에 이르러 月로 나타냄으로써 그 극을 다하였다. 그 중요함이 그와 같으니 爲史者가 어찌 闕할 수 있겠는가⁽⁶¹⁾

라고 하여 년표 형식의 체제를 취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對比年表의 형식은 대외관계사 연구의 기초로서 韓致齋의 《海東釋史》에도 영향을 주어 그 紀 부분의 年紀처리에 그대로 수용되기도 하였다.⁽⁶²⁾ 이처럼 年表法은 《紀年兒覽》이 작성되던 당시 史風의 변화 가운데 드러나는 보편적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紀年兒覽》을 저술한 직접적 동기는 童蒙教育에 일차적 목적이 있었다. 즉 이만운이 일없이 향촌에 寓居하고 있을 때, 그 마을의 學童들이 帝王의 統紀나 世代의 흥패 등을 물어 오면 매번 窘乏하여 선뜻 응하지 못하였다. 어려서부터 역사에 편벽되었다고 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이는 몹시도 괴로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부족하나마 童叢에 대한 응답의 자료로 제공하고자 틈틈이 諸家의 史牒을 모아 歷代沿革·皇王統系 등을 약기하되, 다시 번거로움을 버리고 간략함을 취하여 그 개요를 정리한 것이 곧 《紀年兒覽》이었다.⁽⁶³⁾

이처럼 《紀年兒覽》은 애초부터 역사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내린다거나 재해석을 한다기보다는 동몽의 교육자료로서 마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교육상의 효율성을 기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그리하여 年表 형식, 史略型의 서술체제를 취함으로써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었다.

이덕무는 《紀年兒覽》의 ‘兒覽’에 대하여

‘兒覽’이란 무엇인가? 공(이만운—필자)은 스스로 겸사하여 童孺가 관람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나, 당 孫奕이 찬한 《字書》一部의 이름도 ‘示兒編’이라 하였으니 그 뜻은 똑같은 것이다⁽⁶⁴⁾

(61) 《修山集》 권12 《東史》 三朝鮮年表

「史遷首變其制 以紀傳代編年 而亦知編年之終不可廢也 故特爲年表 而累牘聯簡 不憚其繁 或十年無一事 或百年無可紀 而只書其年數 以至於秦楚之際 月表而極矣 其重如彼 爲史者豈可闕哉」

(62) 李泰鎭, 1982, 앞 논문 p. 240 참조.

(63) 《紀年兒覽》 紀年兒覽總序 중 李萬運自叙 참조.

(64) 《紀年兒覽》 紀年兒覽總序 중 李德懋 誤

「兒覽者何也 公(이만운—필자)則自謙 以爲童孺之所可觀覽 然唐孫奕纂字書一部 名曰示兒編 其義一也」

라고 하여 ‘兒覽’은 일종의 검사라 하였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검사만이 아니었음은 저술의 직접 동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또 이 덕무가 이어서

이 책은 역사가들의 總領이 되니 먼저 어린이들로 하여금 많이 복습하여 환히 알게 한다면 二十三史, 또는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책과 本朝列聖의 誌狀實鑑까지도 저절로 알게 되어 마치 층계를 따라 올라가고 한칸한칸 채우는 것과 같아서 매우 쉬울 것이다. 정밀하고 요약한 것으로 말하면 小學의 名物·度數 따위지만 宏博에 미친다면 정치가의 나라를 다스리는 학문이 될 것이니 도리어 증대하지 않은가⁽⁶⁵⁾

라고 하여 經學에 있어서의 小學과 같이 《紀年兒覽》에 史學의 입문서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에서도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목적을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이미 始筆한즉 또한 濫觴의 폐가 없지 않다”⁽⁶⁶⁾라고 스스로 지적함에서 보이듯 일반적으로 알려진 朴世茂의 《童蒙先習》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아동용 역사교과서로서의 시원적 의미를 갖는다. 정약용이 《紀年兒覽》에 대하여 평하고 있는 편지인 「寄二兒」⁽⁶⁷⁾도 그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전달 대상이 아동이었음을 보면 《紀年兒覽》이 이미 아동교육에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실용성 특히 동몽교육상의 실용성을 취함이 이 책에서는 가장 중요하였던 것이다.

《紀年兒覽》은 이처럼 아동용 사서로서 작성되고 실제로 이용됨으로써 역사교육의 확산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開化期 史家들에게 유용한 참고용 사서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합방직후에는 일제에 의하여 朝鮮古書刊行會本으로 발간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즉 《紀年兒覽》은 북학과 계열의 역사인식이 개화기 사서들에 이어질 수 있는 단서가 되었던 것이다.

(65) 《紀年兒覽》紀年兒覽總序 중 李德懋 撰

「此書爲史家之總領 先使童孺 貫串習熟 瞭然在目 則至若二十三史 東國諸史本朝列聖誌狀實鑑 舉以措之 如緣涉階級 充切間架 甚易與耳 語其精約 則爲小學名數之流 及乎宏博 則爲大人經國之學 顯不重歟」

(66) 《紀年兒覽》紀年兒覽總序 중 李萬運 自叙

「既已始筆 則亦不無濫觴之弊」

(67) 註 (60) 참조.

◆

맺 음 말

이상에서 正祖대에 《文獻備考》의 增訂 작업을 전담하였던 이만운의 사학을 사략형의 아동용 사서인 《紀年兒覽》에 대한 사학사적 분석을 통하여 접근하여 보았다. 이제 그 분석 내용을 요약하고 그 특징적 면모를 지적함으로써 맺음말에 대하고자 한다.

이만운이 《文獻備考》의 증정작업의 담당자로 추천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紀年兒覽》에 있었다. 그는 이미 嘯嘯齋 金用謙에게 알려 지고 있었고, 김용겸의 추천으로 그를 찾은 이덕무와 《紀年兒覽》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정조에게까지 그의 박학한 학문이 전해지게 됨으로써 《文獻備考》의 증정이란 役事가 그 개인에게 전담될 수 있었다. 정조의 그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정도로 그의 학문적 지위가 확고했음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이만운의 학문이 발휘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바로 《紀年兒覽》의 편찬에 있었다.

《紀年兒覽》의 作史原則의 검토에서 그 박학의 측면과 실용성이 북학파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청조 고증학적 분위기와 일맥상통함을 알았다. 대청관계의 객관적 조건의 변화와 탕평정국의 전개에 따라 주자학적 이데올로기는 사회통제의 기능을 상실하여 갔고, 그로 인하여 주자학 일변도의 학문 풍토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사학에서 정통론적 인식의 쇠퇴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史學이 經學의 부용적 위치에서 벗어나 독자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학은 역사이해에 있어서 초연성의 견지를 위하여 새로운 역사연구방법을 모색하여야 하였다. 그럼으로써 청조 고증학의 주체적 수용태세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시대적 당위의 측면을 지녔다.

청조 고증학의 名物·度數的 학문경향은 《紀年兒覽》에는 사마천의 《史記》에서 발원하는 世年表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아동용 사서로서 역사 사실의 전달이라는 교육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간결성을 유지하였고, 도학적 평가보다는 현재적 관점에서의 재정리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사략형의 편년강목체의 서술형태를 취함으로써 아동용 사서로서의 기능적 측면을 담아 낼 수 있었다.

한편 고대사 인식에 있어서도 정통론적 입장에서의 체계화는 약화되었고

修山 李種徽에 접근하는 이원적 계통화의 입장에서 단군조선—부여—고구려 계통의 전승관계를 드러내었고, 발해도 국사의 체계 내에 포섭하였다. 그러나 箕準에서 마한으로의 직접적 연결보다는, 箕準 이전의 마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기준 이후의 마한이 기준과는 단절된 채 토착민의 韓에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한 점은 그의 독특한 견해였다. 그리고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임을 전제로 《幸州奇譜》의 기자 및 마한의 세계를 비판적으로 전재함으로써 황탄하다고 하여 무조건 배제하지는 않았다. 단재 신채호가 《紀年兒覽》에서 단군을 ‘天仙’이라 칭한 사실을 들어 東國 仙敎의 고유한 맥을 세우는데 이용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편사원칙의 결과, 古記의 기록들도 대체로 수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종휘의 《東史》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幸州奇譜》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으나, 《紀年兒覽》에서의 수용은 당시의 상식이란 차원에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 점 아동용 사서가 지녀야 할 보편성의 유지라는 측면에도 합당한 태도였다.

결국 《紀年兒覽》의 사학사적 위치는 象數學·名物度數學에 경도되고 있던 洛論系 학자 즉 북학과 계열의 역사인식에 접근하는 범주 내에 설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은 종래의 경색된 주자학적 분위기로부터의 탈각이었으며 당시의 사상적 지향에 상응하는 수준의 변화였다. 년표법의 중시는 상수학적 학문경향과 《史記》를 중시하는 사학의 풍토 속에서 자연스럽게 귀결될 수 있는 서술형태의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세년표는 《紀年兒覽》의 가장 주요한 장점으로 세인의 평가를 받고 있었다.

역사학이 경학에 종속되어 부용적 위치에 머물고 그 이해수준도 낮았던 상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던 당시에, 《紀年兒覽》은 사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식요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향촌의 學童들에게 교육지침서 또는 교육참고서로서 이용될 것을 목적으로 쓰여졌다. 따라서 이는 경학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상사적 입지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주요한 가치를 갖는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청조 고증학은 무조건적으로 수입되었던 것이 아니라 주체적 필요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던 것이었다. 즉 고증학도 우리의 고유한 발달 배경을 갖고 있었다.

《紀年兒覽》을 저술한 이만운의 박학은 다양한 사고의 길을 열어 주는데 기여하였다. 이만운 사학의 성격은 《增補文獻備考》 가운데 그의 역사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輿地考〉와 〈帝系考〉를 중심으로 《紀年兒覽》과 비교 분석하면 더욱 분명해 지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근대역사학으로의 전환기의 시초에 놓여지는 사학의 독자적 분야의 확보과정에서 접하는 역할과 함께 역사 지식의 확산이란 점에 대하여 그 사학사적 성격이 보다 더 천착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박사과정)